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7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5일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소값에 속 터지고 쌀값에 살맛 잃고… 농심 '뿔났다'

사료비 올라 키울수록 적자
한마리에 140만원 씩 손해

80kg 한가마니 18만원대
쌀값 안정 대책·의지 없어

전남 한우농민 2000여 명·쌀 재배 농민 500여 명 상경집회 나서

#."농번기 끝날 시기입니다. 뙤약볕에 한 숨 돌릴 시기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심정은 오죽할까요? 건설사 경기 좀 나쁘다고 돈 풀고 세제 혜택 다 주잖아요. 전국에서 5%도 안되는 상속세 대상자 세금은 깎는다면서 왜 쌀 농사 짓는 농민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겁니까."

#."사료비 감당하기도 벅찬데, 경매 시장에 내놓지 못해요. 한 마리 키워 팔 때마다 적어도 140만원 손해봅니다. 못 해먹겠다며 올해 700개 농가가 포기했어요. 오죽하면 내 돈 내고 용산으로 가자고 할까요?!"

전남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묵묵히 벼 농사 지어온 것밖에 없는데, "쌀값 폭락을 왜 농사 짓는 농민들과 쌀 많이 안 먹은 국민들에게 돌리느냐"며 하소연한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다. 소값이 떨어져 사료값 감당하기도 벅찬데,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만 챙기고 한우 농가 소득 안정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다음달 3~4일 전남 쌀·한우 농가 농민들이 뙤약볕에도 거리에 나서는 이유다. '국가가 버린 농업', '농민을 버린 대한민국'에 대한 항의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한우농가 2000여 명은 오는 3일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울 상경 집회에 나선다.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15명) 만장 일치로 결정된 집회다.

앞서, 통계청은 '2023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 6000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우 가격의 경우 비육우 600kg 기준으로 3년 전인 2021년 797만원이던 게 1년 만에 740만원으로 떨어지더니 올 5월에는 603만원까지 급락했다. 비육우는 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다. 반면, 사료값은 3년 전 25kg 기준으로 1만 625원에서 지난해 4월 1만 3625원으로 급등했다. 사료비가 증가하고 산지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 한 마리 키워 팔 때마다 142만 6000원을 손해보는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게 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측 요구다. 올 6월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700농가 이상이 폐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전남지역 한·육우 사육농가는 1만 6067가구(사육규모 62만 1028마리)로 경북(77만3000마리) 다음으로 많다.

문대열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국장은 "숫소 한 마리를 350만~400만원에 구입해 사료값 등 생산비를 감안하면 현재 700만~750만원 수준의 소값으로는 경매시장에 내놓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쌀 재배 농민들도 비슷하다. 전남지역 농민들 500여명은 다음달 4일 상경 집회에 나선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쌀값(80kg)이 18만원대까지 내려 앉았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쌀 한 가마니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쌀값 안정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벼 생산량 감소에도 소비량은 더 크게 줄고 있어 매년 15만~20만t 초과 생산되는 실정인데, 지난해에는 시장격리도 하지 않는 등 쌀값을 20만원대로 떠받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지 쌀값(80kg)도 지난 5일 기준 18만 7176원으로, 지난해 7월(18만 6106원)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적 쌀값 추이라면 매년 수확기(10~12월)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는데도, 올 들어서는 반등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쌀값 걱정 않고 농사 지을 때는 언제나 오겠냐는 농민들 푸념도 끊이질 않는다.

전남 농협 RPC 등의 벼 재고량도 15만 2000 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만 3000 t)에 견줘 82.8%나 많다. 농가 인구(14만 7000가구·28만 7000명)는 전국 2위, 경지 면적(27만 7095ha) 전국 1위인 전남 현실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 농업계 판단이다. 농번기 마무리 시기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뙤약볕에서 시위를 벌여야 하는 농민들 심정은 '이대로면 다 죽으라는 것 아니냐'는 분노가 담겨있다.

전남도는 쌀·한우 축산 농가가 전남의 핵심 농정임을 감안, 쌀 재고물량 15만 t 이상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한편,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전남지역 축산농협측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해 지원 방안을 결정해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도 지역 농·수·축산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양 국가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아이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
군사협력 강화로 관계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해석된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북러는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획기적'인 협정을 맺어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로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북러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안보, 국제 정치, 경제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 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진군 40대 부부 '7번째 아이' 출산 ▶2면
KIA 영건-베테랑 경쟁에 탄탄해진 내야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제주 비자숲힐링센터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4 Young Ho Nam Win-Win Cooperation the Grand Festival of Harmony
The Power of Korea from Young Ho Nam
2024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함께
대한민국
2024.6.24.(월) - 26.(수)
서울 광화문 광장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북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